

시간	22일 (월)	23일 (화)	24일 (수)
07:00		기상 / 세면	기상 / 세면
08:00		아침식사	
09:00		〈주제강의1〉 설교 이렇게 준비하라 정학진 목사	한사랑교회 성장사례 청년 양육체계 다지기 최용태 목사
10:00			
11:00		〈주제강의2〉 예배 포스트모던에 답하다 조성돈 교수	조별토의 및 발표 청년사역 해법을 찾아라
12:00			폐회예배
13:00	점심식사		
14:00	개회예배	용두동교회 성장사례 단기선교 준비하기 조세영 목사 꿈이있는교회 성장사례 큐티가 살면 설교가 산다 하정완 목사	
15:00	아현교회 성장사례 목회계획 세우기 현철호 목사		
16:00			
17:00	소그룹 나눔		
18:00	저녁식사		
19:00	베다니교회 성장사례 소그룹 어떻게 세울까? 심은수 목사	〈주제강의3〉 코칭 리더는 코치여야 한다 이규창코치	
20:00			
21:00	종교교회 성장사례 새가족 정착률 높이기 김영석 목사		
22:00			
23:00	취침		

Main Section _ 청년들이 돌아오는 교회들의 부흥이야기

아현교회 성장사례 _ 목회계획 세우기 _ 현철호 목사		6
베다니교회 성장사례 _ 소그룹 어떻게 세울까? _ 심은수 목사		22
종교교회 성장사례 _ 새가족 정착률 높이기 _ 김영석 목사		30
용두동교회 성장사례 _ 단기선교 준비하기 _ 조세영 목사		70
꿈이있는교회 성장사례 _ 큐티가 살면 설교가 산다 _ 하정완 목사		84
한사랑교회 성장사례 _ 양육체계 다지기 _ 최용태 목사		108

Theme Section _ 청년목회에서 잊지 말아야 할 핵심주제강의

주제강의 1 설교 _ 이렇게 준비하라 _ 정학진 목사		48
주제강의 2 예배 _ 포스트모던에 답하다 _ 조성돈 교수		56
주제강의 3 코칭 _ 리더는 코치여야 한다 _ 이규창 코치		100

목회계획 세우기 _ 청년목회 이렇게 하라

| 현철호 목사 e91joy@hanmail.net 前 아현교회청년담당 現 백운교회 담임 young2080 정책위원

청년공동체를 섬기는 사역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다양한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필자는 실제적인 측면에서 <청년공동체에 대한 큰 그림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청년목회에 대한 목회계획을 분명하게 세워 내는 것이다. 그것은 청년목회 분야의 단면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기술적인 방법론을 배우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청년목회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청년공동체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청년목회자들이 꼭 알아야 할 <기본적 원리들>을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필자가 이전에 섬겼던 <아현 감리교회의 청년목회>를 하나의 모델로 소개하면서 청년목회에 대한 구체적이면서도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다.

이와 같이 청년목회에 대해 <기본적 원리>와 <하나의 샘플>을 함께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서 청년부를 섬기는 사역자들은 나름대로 각자가 섬기는 청년부를 <객관적인 눈으로 진단해 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각자의 청년목회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해 낼 수 있는 접촉점들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각자 현장에 맞는 목회계획을 세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청년목회의 목회계획세우기! 과연 어떤 원리들이 있을까?

1. 청년부 비전을 세우라.

청년부는 비전이 이끄는 공동체이어야 한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각 공동체마다 주시는 비전은 다를 수 있다.
이 비전은 청년부의 <방향성>이다. 청년부의 <DNA>이다.
그러므로 우리교회 청년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한다.

사명선언문(Mission Statement)을 만들라.
핵심가치(Core Value)를 결정하라.
비전선언문(Vision Statement)을 한 마디로 결정하라. (슬로건)

어떻게? 방법?
절대 사역자 혼자서 만들지 마라. 핵심멤버들과 함께 하라.
벤치마킹을 하라. 조금하게 만들지 마라. 땀을 들일수록 좋다.
<기도+나눔+정리>의 방법을 사용하라. 분명한 문장으로 명시하라.

2. 청년부 비전을 공유하라.

공유되지 않은 비전은 아무런 힘이 없다.
비전은 공유되어야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비전선포예배를 드리라. (1회)

강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선포되어야 한다. (정기적으로)

교회 곳곳에서 비전 문구가 눈에 보이게 하라. (현수막, 배너, 포스터, 스티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전을 나누라. 꿈을 꾸라.

3. 토양작업을 하라.

비전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을 준비해야 한다.

가장 기초적 토양은 예배와 기도 그리고 큐티이다.

청년부가 예배공동체, 기도공동체, 큐티공동체가 될 때 비전은 잘 자랄 수 있다.

1) 예배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다.

예배는 기념식이 아니다.

예배는 축제예배이다.

예배는 기획되고 준비되어야 한다.

청년부 예배에 있어서 찬양팀은 정말 중요하다.

찬양인도자는 더 중요하다.

예배를 통해 청년들은 말씀을 먹어야 한다.

사역자는 설교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많이 먹어야 한다. 맛있게 먹어야 한다.

잘 먹어야 잘 자란다.

2) 기도

사역자가 먼저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치라.
청년들에게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주라.
개인 골방기도, 공동체 합심기도를 균형 있게 하라.
중보기도팀을 만들어 핵심을 치는 기도 사역을 하라.

3) 큐티

은혜의 자급자족 4영리를 가르치라.
제2상한적인 삶을 제시하라.

큐티 도입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제자훈련팀이나 단기선교팀 등 점점이 가능한 그룹부터 시작한다.

큐티는 어렵게 접근하면 안된다.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예: 큐티진의 도전-상황-변화-적용)
쉽게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을 조직하라.

또 하나의 율법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4. 비전을 구동할 수 있는 큰 기둥을 세우라.

청년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세 가지의 큰 기둥이 세워져야 한다.
이것은 공동체의 뼈대를 세우는 작업이다.

1) 양육기둥을 세우라 : 소그룹

양육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청년은 양육 받아야 성장할 수 있다.
교회 현실에 맞게 세우면 된다.
ex) 새가족반-소그룹(사역팀, 포레모임)-양육반-DTS-리더반(사역자반)

가장 중요한 것이 소그룹에서의 양육이다.

소그룹은 <사랑의 바구니에 진실을 담아 이야기> 할 수 있는 <영적가족>모임이다. 진정한 변화는 <소그룹 안에서 말씀에 비취진 삶을 나눌 때> 일어난다.

소그룹의 핵심은 결국 소그룹 리더이다.

소그룹 리더에게 투자하라.

소그룹은 축제예배와 함께 공동체를 비상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날개이다.

2) 사역기둥을 세우라 : 사역팀

청년은 양육 받아야 할 나이지만 동시에 사역해야 할 나이이다.

은사와 열정에 따른 사역팀을 세우라.

각 사역팀은 공동체의 비전의 성취를 위해 존재한다.

청년들의 은사와 열정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은사발견세미나를 실시한다.

이들을 구체적인 사역으로 연결해주는 네트워크팀을 운영한다.

3) 친교기둥을 세우라 : 또래모임

또래모임은 청년을 붙잡을 수 있는 3중 그물 중의 하나이다.

위 두 기둥으로 잡히지 않는 청년들에게 참으로 효과적이다.

5. 결국 사람이다. 사람을 세우라.

1) 제자훈련을 통해 소그룹 리더를 세우라.

2) 팀장을 발굴하고 전문적으로 훈련시키라.





- 3) 포래장을 잘 세우라.
- 4) 세워진 리더십에 투자하라.
- 5) 위탁교육을 시키라.
- 6) 백업시스템을 구축하라.

6. 비전성취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라.

비전과 핵심가치에 따른 전략을 세운다.
전략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전략은 실천 가능해야 한다.

전략이 세워졌는가? 실천하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전략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늘 점검하라. 수정하라.

행함이 중요하다.
고민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우를 범하지 말라.
부족해도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신다.

7. 청년 목회계획의 실제 : 아현교회 청년목회 (2006년 자료)

아현감리교회 청년목회

1. 청년교회 사명선언문(Mission Statement)

우리의 사명은 청년을 양육, 훈련시켜서 온전히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며 그들로 하여금 교회와 민족과 세계를 섬기게 하는 것이다.

2. 청년교회 비전선언문(Vision Statement)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

3. 핵심 가치(Core Value)

가) 예배: 우리의 비전은 모든 청년이 참된 예배자가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나) 교제: 우리의 비전은 모든 청년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이다.

다) 양육: 우리의 비전은 모든 청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도록 양육과 훈련을 받는 것이다.

라) 사역: 우리의 비전은 모든 청년이 저마다의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여 각 분야에서 은사대로 사역하는 것이다.

마) 기도: 우리의 비전은 모든 청년이 기도하는 것이다.

바) 증거: 우리의 비전은 모든 청년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지역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다.

4. 지난 사역 평가와 2006년 청년교회 목회 방향

2002년 1월 10일, 아현 청년교회는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비전과 <사명선언문> 그리고 6가지의 <핵심가치(예배, 교제, 양육, 사역, 기도, 증거)>를 결정하고 이것을 6대 비전으로 선포하였다. 그리고 청년교회는 지금까지 이 비전이 이끄는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매년 이 비전과 사명에 따른 구체적인 전략과 실천과제들을 수정, 보완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2002년도는 무엇보다 비전을 공유하는 한 해였다고 할 수 있다. 담당목사와 제1기 청년교회 리더들이 함께 세운 이 비전을 모든 청년들과 함께 품어가는 해였다. 그리고 이 비전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예배와 기도에 힘쓰는 해였다. 또한 청년들에게 소그룹을 소개하고 소그룹의 유익을 맛볼 수 있도록 돕는 등 공동체의 토양작업을 하는 해였다.

2003년도에는 실제로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 필요한 큰 기둥을 세우는 해였다. 즉 담당목사 교육-5주 새가족반-소그룹 양육-DTS훈련-제자훈련 등으로 이어지는 양육체계를 수립하였고, 실현 가능한 사역팀을 비전에 맞게 세워나갔으며(현재 15개

사역팀), 또래별 모임을 신설함으로써 양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친교공동체의 기둥을 세워나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청년교회는 비전을 구동할 수 있는 틀을 갖추게 되었다.

2004년도는 청년교회가 전도공동체와 선교공동체를 실현하는 원년으로 선포했던 한 해였다.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모습이 결국 전도공동체와 선교공동체라고 설정하였고, 지금까지 구축된 시스템 속에서 생겨나는 힘과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 지에 대한 방향성을 확인하며 노력했다. 즉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확인하고 노력해 나갔다.

2005년도는 이러한 전도공동체의 비전, 선교공동체의 비전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실행시키고 성취해 나간 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전도공동체의 비전은 년2회 실시되는 <VIP초청잔치>라는 전략을 통해 성취해 나갔고, 선교공동체의 비전은 역시 년2회 실시되는 단기선교를 도구로 삼아 아현교회가 섬기고 있는 미얀마, 네팔, 몽골 등을 품고 후원하며 기도하는 공동체로 발전해 나갔다. 특히 지난 2005년 4월에는 이형우 청년을 C국 태권도 선교사로, 김은아 청년을 네팔 소망의 집 음악교사선교사로 파송하면서 자체적으로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를 배출하였고, 이후의 모든 후원을 지금까지 청년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앞으로 맞이하게 될 2006년도는 청년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비전을 확장시키는 해>가 될 것이다. 물론 아직 이러한 비전이 완성되었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지난 4년을 토대로 하면서 5개년 계획으로 세웠던 청년목회 1기를 잘 매듭짓는 한 해가 되도록 할 것이다. 그것은 결국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의 비전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전도공동체와 선교공동체>의 모습을 더욱 확고히 다지고, 그 영역을 넓혀감으로써 비전의 영향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전도공동체의 비전을 확장시켜가기 위하여, 우선 지금까지 진행된 <VIP초청잔치>를 매뉴얼화 작업을 할 것이다. 즉 VIP초청잔치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 행정서식, 현수막, 초청장, 각종 영상, VIP 현황판, 등을 체계화시켜내고 자료화하여 하나의 CD에 구워낼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내부적으로는 청년에게 맞는 전도의 전략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아현교회 청년공동체의 전도 열매인 <VIP초청잔치> 사역을 타교회에 제공함으로써 전도공동체의 영향력을 나누도록 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돌봄과 양육 위주로 진행되어오던 소그룹을 <목적이 있는 소그룹>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학기초 소그룹을 시작하면서부터 모임의 목적이 전도에 있음을 강조할 것이고, 지속적으로 전도를 생활화 해나가는 소그룹을 형성해 갈 것이다. 결국 청년교회의 소그룹은 셀교회의 셀과 같이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분화하는 과정을 거쳐 재생산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소그룹이 재생산 될 때 반드시 필요한 리더수급의 문제에 대한 시스템 역시 구축할 것이다.

또한 이제 청년교회는 교회 내에서의 영향력을 넘어서서 교회 인근 지역에 있는 젊은 이들에게도 사역의 장을 넓혀 갈 것이다. 우선 북아현동 인근 지역에 있는 학교들(중,

고,대)을 파악한 뒤, 이 학교들과의 가능한 접촉점을 연구하여 청년교회 차원에서 지역의 학원선교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개발할 것이다. 가능한 전략을 결정하면 우선 한 두 학교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적용한 뒤, 점차적으로 사역의 범위를 넓혀가면서 학원선교의 사역을 확장시켜 나갈 것이다.

선교공동체의 비전을 확장시켜가기 위해서는, 실시하고 있는 단기선교를 여름, 겨울 2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우리 아현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와 긴밀한 교류를 이어가고 이러한 단기선교를 통해 청년들을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해 나갈 것이다. 이 단기선교의 방향은 "우리의 필요"가 아닌 "장기사역의 필요에 따른" 단기사역이 되도록 하며, 청년들이 자비량으로 재정을 감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될 것이다. 또한 이 단기선교사역 프로그램도 매뉴얼 작업을 하고 자료화하여 타교회나 타청년공동체들에게 사역나눔의 도구로 삼을 계획이다.

또한 이미 파송한 청년선교사인 C국의 이형우 청년과 네팔 소망의 집의 김은아 청년을 위해 소그룹 차원으로 매월 1회 자발적 후원금을 모금하여 안정적이 지원과 후원이 이루어 지도록 할 것이다. 또한 이들을 위해 물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매주 소그룹 모임마다 이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며 이들을 파송한 공동체로서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토록 할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이 두 청년 이외에도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가지고 헌신하는 또 다른 청년 자원을 발굴하여 청년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장단기 평신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공동체가 되도록 할 것이다. 물론 청년교회 청년들의 재정능력이 많은 사람을 모두 책임지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앞으로 파송되는 청년들의 경우는 최대한 자비량 선교사로 자원하도록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전도공동체의 비전, 선교공동체의 비전을 확장시켜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전을 품고 함께 이끌어 갈 사람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일 것이다. 그러므로 2006년 양육과 훈련의 초점은 핵심 리더십을 제대로 세우는 것에 두게 될 것이다. 곳곳에 준비된 리더십을 세워나갈 것이다. 그런 청년리더들을 세우기 위해 제자 훈련과 리더훈련을 보다 더욱 체계적으로 실시하되, 범위를 좁혀 비전에 집중된 제자 훈련, 비전에 집중된 리더훈련을 실시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소그룹 리더, 사역팀장들에게 각 분야에 맞는 적절한 외부 위탁교육을 더욱 확대하여 실시할 것이다. 특히 2006년도에는 이 모든 사역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예배를 위한, 예배 사역자를 위한 투자를 해나갈 것이다. 찬양팀, 위심팀, 중보팀, 새가족팀 등 예배와 관련된 사역팀의 네트워크를 이루어 예배가 더욱 살아나도록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예배를 인도하는 핵심 리더들에게는 국내 외의 선전예배를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이다.

또한 청년교회에서는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비전이 이루어진 공동체의 모습을 초대교회(셀교회)로 설정하고 셀교회로의 전환을 계속적으로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굳이 생소한 명칭이나 틀을 바꾸기보다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셀교회의 시

시스템과 가치들을 현재 청년교회의 구조에 도입하고 적용하면서 점진적인 셀교회로의 전환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셀교회로의 전환을 통해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의 비전은 더욱 분명해 질 것이다.

특히 셀교회로 가는 과정에서 2006년은 사역의 시스템을 체계화시켜내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그저 담당목사나 핵심 리더십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거나,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사역팀을 운영해 왔다. 2006년에는 더욱 많은 청년들이 사역의 주체로 서게 하기 위하여 이미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역팀의 사역을 세분하여 코드화하고 각 사역마다 요구되는 은사, 열정, 성격유형 등을 정리하고, 각 사역에 필요한 시간과 구체적인 사역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소위 사역기술서를 작성하려고 한다. 그리하여 이후로는 이 사역기술서를 토대로 하여 기존 청년들과 새로 전도되는 청년들의 은사를 발견하고 열정과 성격 등에 따라 사역을 배치, 조정해주는 사역국을 운영함으로써 청년교회가 사역의 시스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2006년도의 사역을 통해 아현교회에서는 온전히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길러지게 될 것이며, 그렇게 배출된 청년들이 가깝게는 교회 내에서, 그리고 이 민족과 세계 속으로 파송되어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영적군사들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5. 비전성취를 위한 2006년도 전략(Strategy)

청년교회는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비전을 6가지의 핵심가치로 분류하고 있다. 청년교회는 이 6가지의 핵심가치를 6대 비전이라고 부른다. 즉 <예배, 교제, 양육, 사역, 기도, 증거>가 그것이다. 그러므로 보다 구체적인 2006년의 청년교회의 목회계획 역시 이 6가지의 분야로 구분한 뒤, 현 단계에서 가장 적절한 전략적 목표들을 수정 보완해서 2006년에 맞는 전략을 세운 뒤, 그대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가) 2006년 예배

- 1) 청년교회는 지금까지 4부 예배의 초점을 구도자(seeker)를 고려하는 예배로 설정하고 예배를 발전시켜 왔다. 그것은 청년교회가 지속적으로 전도되어지는 청년들을 고려한 이유였다. 청년교회는 2006년도 역시 전도공동체의 비전을 확장해 나갈 것이고, 새롭게 교회에 나오는 불신자 청년들이 많이 오게 될 것으로 4부 예배 순서의 모든 초점을 더욱 구도자(seeker)에 맞춰간다.
- 2) 설교의 메시지는 더욱 복음적인 내용을 지향한다.
- 3) 예배 순서 역시 구도자들에게 보다 쉽게 다가가도록 간증, 영상, 드라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4) 예배와 관련된 사역팀(찬양팀, 중보팀, 위심팀, 영상팀, 새가족팀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네트워크하여 연합사역을 실시한다.
- 5) 예배관련 핵심 사역자들을 훈련하기 위하여 타교회 방문, 예배 관련 위탁교육 등을 실시한다.

특히 6월말에 열리는 힐송컨퍼런스에 찬양팀의 핵심멤버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6) 4부 예배의 안정된 예배 환경에 필요한 장비를 보완한다. (악기 및 음향시스템 등)
- 7) 4부 예배가 이 시대의 청년중심의 대예배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나) 2006년 교제

현재까지 구축된 세 가지의 교제의 기둥 즉 소그룹 또래모임 사역팀 등을 더욱 든든하게 세워간다. 소그룹 중심의 또래모임과 사역팀 모임이 진행되되, 비정기적이던 또래모임을 매 짝수달 마지막 주일로 고정시켜 안정화시키고, 사역팀 모임 역시 각 팀별로 정례화시킨다.

- 1) 소그룹 : 소그룹은 기본적인 교제의 장이다. 소그룹을 전인적 사랑의 공동체로 형성한다. (매주)
- 2) 사역팀 : 은사따라 열정따라 모인다. (수시로 모여되 정기모임을 고정시킨다.)
- 3) 또래모임 : 또래모임을 활성화 시킨다. (격월로 짝수달 마지막 주 소그룹 시간에 모인다)
- 4) 전체모임 : 2006년 잠정적으로 전체모임은 하지 않는다. 전체모임 기능 가운데 새가족, 등반자 소개는 설교 전에, 생일자 소개는 교제송 시간에, 그 외의 광고는 소그룹 시간에 진행한다. 또 필요한 중요한 광고는 영상으로 제작하여 설교 전에 진행한다.
- 5) 연간 3회의 리더십캠프를 통해 청년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의 교제를 튼튼히 한다.
- 6) 소그룹별 M.T를 년2회, 사역팀별 M.T를 년1회 이상, 또래별 정기모임을 총6회 갖는다.
- 7) 홈페이지의 활용을 적극 권장하여 온라인 상에서도 교제한다.

다) 2006년 양육 및 훈련

현재까지 구축된 양육체계를 보다 분명하게 확립하여 실시한다. 그 양육체계는 다음과 같다.

- 1) 처음 교회에 나온 청년은 담당목사와의 첫모임을 통해 아현교회, 청년공동체에 대해 배운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담당목사와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정례화한다. (접촉점)
- 2) 새가족반(5주과정)을 통하여 처음 교회에 나온 청년들을 양육한다. 새가족반에서는 기본적인 복음의 내용과 아현청년교회의 비전 등을 교육한다.
- 3) 새가족반을 마친 이들을 소그룹으로 등반시켜 지속적인 양육과 훈련을 갖게 한다.
- 4) DIS훈련, TD, 등 각종 위탁교육을 통해 훈련을 심화시켜 간다.
- 5) 제자훈련을 통하여 리더후보생들을 길러낸다. - 예비리더

6) 리더반을 통하여 리더로 섬기게 한다. - 리더

- ☞ 양육을 위해 필요한 단기세미나를 실시한다.
- ☞ 다양한 양육과 훈련에 대한 정보(세미나, 책 등)를 청년들에게 최대한 제공하고, 필요한 위탁교육은 지원하여 참여시킨다.
- ☞ 정기 청년심방(매주 화, 목)을 실시한다. (가정, 직장, 학교)

라) 2006년 사역

- ☞ 2006년도에는 사역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역을 코드화하여 사역을 분류하고 그 사역 하나 하나의 사역기술서를 작성하여, 사역국에서는 사역을 배치,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 ☞ 이러한 사역시스템 안에서 모든 청년들은 일인일사역을 하도록 권한다.
 - ☞ 그리고 그 사역에 대해 보다 전문성을 갖도록 지도한다.
 - ☞ 교회 내 사역을 적극적으로 권면한다. (교사, 성가대, 식당봉사, 각종 봉사)
 - ☞ 2006년도에는 청년교회에서 고3 학생들을 케어하고 돌보는 고3 사역을 실시한다. 특히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학기 초부터 청년교회에 올라오기 전까지의 약 10개월 동안 일대일로 멘토가 되어줄 청년을 정하고, 최소 월1회의 접촉과 돌보는 고3 사역을 한다.
 - ☞ 그러나 사역이 중복되어 과중하지 않도록 지혜로운 조정이 필요하다. 청년들은 사역해야 하는 대상이지만 동시에 양육 받아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 ☞ 이러한 원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역에 대한 비전을 이루어 간다.
- 1) 각자에게 주어진 다양한 은사를 발견하도록 돕는다. (은사발견세미나, 은사상담 시스템 구축)
 - 2) 비전따라 은사따라 구체적 사역팀을 구성하여 사역하게 한다.
 - 3) 다양함을 인정하지만 연합하고 협력하게 한다.
 - 4) 모든 사역팀의 구체적 목표는 전도와 선교를 지향한다.
 - 5) 기존 사역팀은 더욱 내실있게 꾸려내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역팀은 계속 신설한다. (행정, 문서, 새가족, 찬양, 중보, 주방, 위생, 영상, 교사, 성가대, 선교, 검, 태권도, VIP팀, 수준위 등)

마) 2006년 기도

- ☞ 2006년도에도 무엇보다 기도를 청년교회 모든 사역의 중심에 둔다.
- 1) 매일 저녁 기도 - 개인적인 영적 성숙을 위한 기도: 매일 저녁 8시
 - 2) 목요 중보 기도 - 청년교회의 부흥을 위한 기도: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 3) 금요 합심 기도 -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는 기도: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 4) 사역팀 기도 - 각 사역팀의 구체적 사역을 위한 기도: 사역팀 모임시
 - 5) 분기별 특별기도회 - 3개월에 한 주간씩 청년교회의 중요사항을 위한 기도: 1월, 4월, 7월, 10월

바) 2006년 증거 (전도, 선교)

☞ 2006년도는 청년교회가 "전도공동체"를 확장시키는 해이다.

- 1) 관계전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나누고 실천한다.
- 2) 소그룹에 셀 개념을 도입하여 소그룹이 전도소그룹이 되도록 노력한다.
- 3) 이를 위하여 2006년 2월 중에 있는 겨울 수련회를 셀교회 컨퍼런스를 참가한다.
- 4) 2004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VIP초청잔치를 연 2회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5) 지역내 캠퍼스가운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이대 CCC와 보다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함께 협력하며 사역한다.
- 6) 지난 해부터 실시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군선교를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즉 군선교회에서 보내주는 진중세례장병의 신앙정보를 활용하여 더욱 구체적인 전도를 실시한다. 즉 매주 주보를 보내주고, 연 23회 편지와 선물을 보내주며 그들이 제대 후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 2006년도는 청년교회가 선교공동체를 확장시키는 해이다.

- 1) 그동안 년 1회 실시하던 단기선교를 확대하여 실시한다. 필요시 단기선교팀의 숫자나 단기선교의 횟수를 확대한다.
- 2) 단기선교는 철저하게 선교지의 필요에 의한 단기선교를 한다. 즉 장기선교사에게 도움이 되는 단기선교를 실시한다.
- 3) 선교지를 위한 중보기도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면서 정기적으로 선교사님들과 교제한다. (매일, 편지, 물품 등) 선교지를 지속적으로 품는다.
- 4) 선교팀에서 축적된 선교적 노하우들을 타교회, 기관 등에 나누는 일을 한다. 단기선교 사역에 대한 매뉴얼 작업.
- 5) 2005년 4월 파송한 태권도 청년선교사를 더욱 잘 지원하고 돕는다.

- 이름 : 이형우(29세), 청년교회 리더, 태권도팀장, 태권도 공인5단, 사범 및 생활체육 3급지도자, 심판 3급, 경기지도자 2급, CCC 협동간사, TIA간사, 감신대 태권도선교팀 지도간사

- 선교지 : C국 C도시

- 기 간 : 2005년 4월부터 - 2007년 3월까지 (약2년간)

- 사 역 : 태권도사역, 대학사역

청년교회 선교팀을 중심으로 결성된 후원회를 통해 돕는다.

필요한 모든 재정은 100% 청년들의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 6) 네팔로 파송한 김은아 청년을 비롯하여 그 외에도 지속적으로 선교지로 나가길 헌신하는 청년들을 발굴 지원한다.
- 7) 이후에 파송되는 청년들의 장단기 사역은 모두 자비량의 원칙을 갖는다.
- 8) 그밖에도 여러 선교적인 프로그램과 선교훈련, 타지역으로의 단기선교 등을 통해 아현교회 청년들을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길러낸다.

* 지면관계상 이곳에서는 뺐지만, 위와 같은 목회계획에
〈연간계획표〉와 〈예산안〉을 첨부하면 완벽한 청년부의
목회계획이 될 것이다.



8. 두 가지 무기를 장착하라.

시 78:72,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공교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9. 기도하라.

잠16:9,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시니라"

사랑하는 청년사역자들이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년부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일은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일로 부름 받은 일꾼들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능력을 베푸시나니(대하16:9)"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 귀하게 쓰임 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소그룹 어떻게 세울까?

| 심은수 목사 sesbc153@gmail.com 베다니교회 청년담당

행복한 소그룹, 건강한 청년 공동체

청년부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생각하는 교회도 있고, 뜨거운 감자로 여기는 교회도 있다. 청년부가 부흥하면서 교회의 분위기와 체질이 바뀌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청년부 때문에 교회가 더 어려워지고 목회자들간의 갈등만 커지는 교회도 있다. 청년부는 모 아니면 도인 경우가 참 많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까지는 아니더라도 교회와 함께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베다니교회 젊은백성의 사례를 통해서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고자 한다. 베다니교회 젊은백성이 2007년부터 4년간의 시간을 토대로 청년공동체의 건강한 모습이 무엇인지 소그룹을 중심으로 찾아볼 것이다.





1. 영적 네트워크의 형성

- a. 새가족이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3개 정도의 소그룹에 소속할 때 정착률이 매우 높다.
- b. 새가족 양육(6주)을 마치고 등반해서 CM에 들어가는데 그 이외에 한 가지 사역을 꼭 권한다.
- c. 기본적으로 또래 모임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한다.
- d. 모든 청년들이 CM 이외의 다양한 소그룹에 속하게 해서 영적 돌봄이 폭넓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e. 현재 45개의 CM과 8개의 사역팀, 6개의 FAMILY가 있다.

2. 결국 문제는 리더다!

- a. 리더가 공동체의 분위기를 좌우한다.
- b. 끝없이 리더를 키워내라.
- c. 리더는 다른 청년들보다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이 섬기기로 결단한 사람임을 알리라.
- d. 리더를 격려하고 영적인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라.
- e. 리더의 교체 타임을 적절하게 잡아라.

3. 리더를 키워내는 제자훈련

- a. 4개월간 집중적으로 말씀, 기도, 섬김의 훈련을 실시한다.
- b. 리더를 세울 것을 염두에 두고 제자훈련을 실시하라.
- c. 영적으로 건강한 분위기를 확산시키도록 하라.
- d. 공동체 내의 다양한 훈련과 연계하라.

4. 영적 저수지, 목요기도회

- a. 소그룹이 은혜로 다져지려면 평소에 기도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
- b. 소그룹별로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준다.
- c. CM이나 또래가 최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날로 정한다.
- d. 리더들은 기도회에 최선을 다해 참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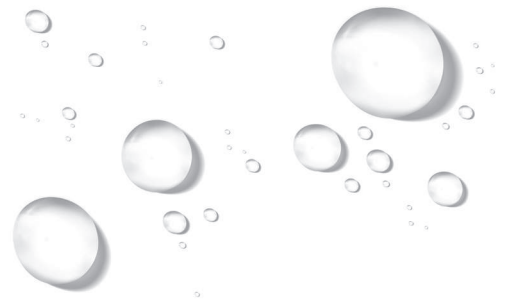
5. 행복한 CM

- a. 건강한 리더를 세워가고 CM 분위기를 잡아가면서 현재 90% 이상이 CM에 참여한다.
- b. CM은 기본적으로 영적상호책임이 목적임을 인식한다.
- c. 설교 노트에 나눔의 주제를 제공해서 CM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한다.
- d. 오프라인, 온라인상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결속을 다진다.
예) CM별로 예배 정시 참석하기, 인터넷 카페를 이용- 감사 릴레이, 큐티 릴레이, 칭찬 릴레이, 특별새벽기도회 인증샷 올리기 등
- e. 1년에 1회 이상 MT를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 f. 고인물이 되지 않게 하고, CM의 지속 기간은 상황에 맞게 하라.

6. 리더들의 은혜 발전소, 리더훈련

- a.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나눔과 기도회를 병행한다.
- b. 목회철학을 공유하고 사역의 공감대를 형성한다.
- c. FAMILY를 통해서 리더들도 양으로서 돌봄을 받게 한다.
- d. CM 양들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한다.





7. 리더들의 돌봄 공동체 FAMILY

- a. 청년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리더들을 6명 선발했다.
- b. 리더들로 구성된 중그룹 FAMILY의 리더로서 CM 리더들을 돌본다.
- c. 리더훈련은 기본적으로 FAMILY 단위로 구성되며 수련회를 비롯한 여러 행사의 활동 단위가 된다.
- d. 목회자와 함께 리더들을 돌보며 격주 수요일 저녁마다 모여 사역을 점검하며 기도회를 갖는다.

25

8. 또 하나의 시도, 성숙자반

- a. 더욱 성숙한 리더와 소그룹을 세워가기 위해 제자훈련을 마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b. 3명을 한 그룹으로 1주일에 1회 자체적인 모임을 갖는다.
- c. 기본 과제와 필수 영성 생활에 대한 점검을 갖고, 기도회를 한다.
- d. 향후 훈련된 리더들을 통해서 다양한 소그룹을 형성해나갈 예정이다.
- e. 현재 10그룹 정도가 주중 자체적인 모임을 갖고 있다.

9. 감동 시스템

- a. 청년들은 감동받으면 변화된다.
- b. 생일이나 기타 애경사는 기본,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감동을 전하라.
- c. 제자훈련, 비전트립, 임원 모임 등에서 선배들이 후배들을 깜짝 방문하여 축복하고 격려한다.
- d. 기본적으로 영적인 관심으로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10. MT 및 수련회

- a. CM이나 사역팀, 비전트립팀, 제자훈련, 임원 등 소그룹 별로 MT를 실시한다.
- b. 주로 금요일과 토요일을 이용해서 가고 있으며,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 c. 중요한 MT는 목회자가 함께 하여 영적인 돌봄을 갖는다.
- d. 여름수련회와 겨울수련회를 통해서 CM 식구들이 단합하여 은혜를 받게 한다.
- e. 1년에 2회 리더 수련회를 열어 리더들을 격려하고 사명을 다짐한다.

11. 교회와 함께 하는 청년 공동체

- a. 교회 사역에 소그룹별로 잘 참여해서 교회와의 관계도 유기적으로 형성한다.
- b. 교회 내 독거 노인을 CM별로 방문한다.
- c. 헌혈, 지역 어르신 초청잔치, 사랑의 안마, 바자회, Happy House 등 교회 내 다양한 행사에 CM 혹은 FAMILY 별, 혹은 팀을 구성해서 적극 참여한다.
- d. 임원들은 정기적으로 담임목사와 장로를 비롯한 교회 리더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
- e. 비전트립과 수련회 등 청년행사를 적극 홍보하고 기도 요청을 해서 영적, 재정적 후원을 받는다.

* 참고자료 | 베다니교회 젊은백성 분기별 계획
(교회를 섬기는 행사만 분기별로)



시기	행사	내 용
1-3 월	1부 찬양대 교회 창립주일 겨울수련회 해피하우스	1부 예배 찬양대(웨슬리)로 매주 40-50명의 청년이 봉사한다. 전체 행사에 진행을 돕는다. 겨울수련회를 홍보하여 성도들에게 기도의 후원을 받는다. 독거노인 집을 수리하고 일일 관광을 시켜드린다(분기별).
4-6 월	성금요일 성극 사랑의 안마 초청예배 성년 축하예배 어르신 초청잔치 헌혈 젊은백성 특별새벽기도회	성금요일 기도회 때 성극을 담당한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5월 한 달 주일 점심시간에 안마해 드린다. 장로회, 여선교회, 청장년회, 교육부 임원 초청 함께 예배 성년을 맞이하는 청년들의 부모님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린다. 여선교회, 청장년과 함께 지역 어르신 초청 식사를 대접한다. 청장년과 연계, 헌혈 행사를 돕고, 청년들도 헌혈에 적극 참여 일주일간의 영적 훈련을 진행하며 참석 가능한 성도들도 함께 한다. 마지막날은 담임목사가 설교한다.
7-9 월	한여름밤의 성령축제 수련회 및 비전트립 젊은백성 주관예배	교회 전체적인 여름 축제인 한여름밤의 성령축제의 진행을 전반적으로 돕고 한 부분을 직접 참여한다. 청년들의 여름 집중훈련을 홍보하고 성도들로부터 영적, 재정적 후원을 받는다. 여름에 있었던 비전트립 보고회 겸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청년들의 근황을 알린다(오후예배).
10-12 월	바자회 추수감사주일 칸타타 성탄전야의 밤 독거노인 방문	지역을 섬기기 위한 바자회의 운영에 적극 참여한다(청장년 주관) 평소 1부예배 찬양을 담당하는 웨슬리 찬양대가 오후예배에 추수감사주일 칸타타를 담당한다. 교회학교와 젊은백성으로 성탄전야 행사를 진행한다. 교회내의 독거노인을 성탄예배 후 CM(청년속회)별로 방문한다.

* 젊은백성 자체로 이루어지는 전도축제, 새가족 환영회, 요플페스티발(찬양 컨테스트), 부흥회, 청장년과 함께 하는 축구리그 등의 행사는 제외한 내용

새가족 정착률 높이기

| 김영석 목사 youngseok74@gmail.com 종교교회 청년담당

a. 여는 말 : 새가족이 머무는 교회가 부흥한다.

교회가 부흥하는 원인은 다양할 수 있으나 교회가 부흥하는 현상은 한 가지다. 새가족이 정착하는 것이다.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찾은 사람, 지나가다가 들른 사람, 부모와의 평화를 위해 떠밀려온 사람, 애인 때문에 혹은 애인 만들려고 온 사람, 교회 쇼핑 중인 사람 등등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찾아온다. 그들이 정착하면 성장하는 것이고 그들이 떠나면 정체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가족이 정착하는 이유도 한 가지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좋은 새가족 정착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고 정성껏 돌보는 리더들이 있어야 하고 영감있는 예배와 찬양이 있어야 한다. 그들이 찾아오는 이유가 다양한 만큼 새가족 정착을 위한 교회의 노력도 다양해야 한다.





종교교회 청년부는 지난 2006년 <예배 평균 출석>이 60명에서 2010년 300명으로 성장한 공동체다. 광화문 한 복판 110년된 교회에서 청년부가 부흥한다는 이야기가 많은 교회에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란다. 1년 동안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의 수는 2006년 72명에서 2010년 155명 정도가 되었다. 그 중에서 등록자는 2006년 25명에서 2010년 118명으로 늘어났으며 (2주 동안의 새가족교육을 마친 사람을 등록자로 받는다.) 정착자는 2006년 18명에서 2010년 118명으로 늘어났다.

통계에서 보여진 대로 청년부의 성장은 단기간에 손쉽게 이뤄지지 않는다. 첩경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없다. 정도가 있을 뿐이다. 공동체가 건강해 지면서 정착률도 높아진다. 성장하면서 정착률도 높아져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가족 정착률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길은 청년부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다.

b. 새가족 정착 프로그램 : 한 사람에게 집중하라.

1. 새가족 교육_2주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2주 과정에 안착하였다. 다른 교회의 좋은 예를 바탕으로 8주, 4주, 5주 과정을 시행해 보기도 하였으나 정착률을 높이는데 그다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짧은 기간 동안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공동체를 만나게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였다.

-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에게 방문카드작성을 강요하지 않는다.
- 새가족 교육은 교육이 목적이 아니라 정착이 목적이다.
-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해야 하는 이야기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 도리어 그들의 관심과 필요를 파악하는 일에 신경을 써야 한다.
- 웃음은 필수다. 새가족이 기분 좋게 자기소개 하도록 돕는다.

종교교회 여호수아 청년부 새가족팀 사역 매뉴얼

조직 및 역할

1. 새가족 담당 교역자 1명

매주 1주차 모임을 인도한다. 방문자들에게 교회와 공동체를 소개해 주고 적합한 새가족 리더를 연결해 주며, 2주차 교육 후에는 친구를 소개해 주고 목장으로 연결시킨다.

2. 행정/물품 담당 1명

방문자 선물 준비, 등록 선물(성경책)포장, 1주차 간식 세팅, 방문자 엑셀 파일관리, 등록자(2주차 교육수료자) 사진과 이름을 공동체 싸이클럽에 올린다.

3. 새가족 섬김이 4명 (2명씩 한 조)

새가족 교육은 두 주간 진행 되므로, 두 명이 한 조로 구성되어 로테이션으로 방문자를 맞이한다.

진행순서 및 준비 사항

1. 등록 권유

새가족팀 리더들은 예배 전, 후 낯선 사람에게 예배 후 목사님께서 공동체를 소개하는 선물을 주시니 받아가시라고 권면하며 방문카드(이름, 전화번호, 주소, 세례유무, 인도자 기입)를 적게한다. 교육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거부감을 표현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번 권유하지 않고, 얼굴을 기억하여 반갑게 인사만 한다.

2. 새가족 교육 준비

예배 후 방문자 카드를 받았던 사람들을 기억하여 본당 뒤편 새가족 석으로 인도하고, 사람 수 대로 방문자 선물을 준비하여 청년담당목사에게 방문자 카드와 함께 드린다. 행정/물품 담당은 방문자와 리더 수를 파악하여 새가족 실에 간식을 미리 세팅한다.

3. 새가족 리더와의 만남

청년담당목사가 한 사람씩 인사하고 호명하며 기도한 후 방문자 선물을 나눠준다. 그 후 리더들은 20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새가족 실로 인도한다. 원하는 사람만 데려간다.

4. 공동체 소개 및 자기 소개

담당 전도사가 먼저 공동체 매뉴얼 내용 및 공동체의 특징 등을 소개한다. 너무 심각하지 않고 즐겁게, 그러나 예의 바르게 방문자들이 궁금해 하는 것들을 소개한다. 우리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들(교회의 이미지를 심어준다)과 우리 공동체의 장점, 마을/목장 등 낯선 조직에 대하여 알려준다. 십분 정도의 공동체 소개 후에는 함께 모인 모든 사람이 돌아가며 자신을 소개한다. 신앙생활 경험, 취미, 관심사, 전공 등을 얘기한다. 새가족 리더들은 모든 방문자들이 편안하고 즐거울 수 있도록 자기소개를 준비하여, 정성껏 이야기 한다.

5. 새가족 리더와 네트워킹

자기 소개가 끝나면 담당 전도사는 방문자의 나이나 성향 등을 고려하여 새가족 리더와 연결해 준다. 새가족 리더는 자신이 담당하는 방문자와 연락처를 주고 받고 성경학교, 동아리, 예배, 화장실 위치 등을 자세히 소개해 준다. 가능하면 서로의 기도제목을 나누고, 받은 기도제목으로 한 주 동안 문자나 전화로 관심을 쏟는다.

6. 2주차 교육

예배 후, 1주차 시 관계 맺은 방문자와 2주차 교육을 한다. 이 때, 함께 먹을 간식을 준비해 간다. 새가족 리더는 20분 동안 복음을 전한다. 교육 후, 새가족 리더는 청년부 실로 방문자를 인도하여 함께 청년담당목사를 만나 대화를 나눈다. 이 때에는 주로 신앙 경험, 하고 있는 일, 관심사 등 방문자에 관한 대화를 나누며, 대화 후에는 함께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교회 성경책을 선물한다.

7. 행정처리

모든 방문자 카드는 폴더에 보관한다. 1주차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방문자 엑셀파일로, 2주차 까지 마친 사람들은 등록자 엑셀파일로 정리한다. 1주차 교육만 받은 사람들은 꾸준히 전화심방하여 등록을 권면한다.

2주차 교육 전문

00형제님/자매님, 일주일 동안이나 잘 지내셨어요? 저번에 기도부탁 하신 일은 잘 해결이 되셨나요? (등의 안부를 묻는다.) 오늘은 간단하게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 해 볼게요.

먼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 해 볼 텐데요.

교회를 나오기 전에도 하나님이라는 분은 한 번쯤 들어 보셨을텐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분이신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를 한 번 나눠볼게요. (새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함께 나눠봅니다. 요즘 내가 느끼는 하나님이나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네,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님에 대한 성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 인간을 서로 사랑하기 위해 지으셨습니다. 00형제, 자매님도 하나님이 사랑하기 위해 만드셨고, 지금도 너무나 무 사랑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동시에 우리가 짓는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이제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로마서 3:23)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저도, 00형제, 자매님도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면 흔히 도둑질을 한다거나 살인을 저지르는 것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인정이 되시나요? (대부분 반응이 별로 없죠..)

죄의 정의를 살펴보면 더 이해가 잘 가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

신 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한 것이 죄예요. 도둑질, 살인, 간음 등과 같은 것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 이구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지 않은 것도 죄라고 해요. 그래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것도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행해야 하는 일인데 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은 걸 보면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

또 한 가지 인간에 대한 것은요.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간다고 하는 말도 하고 있구요. 천국에 가기 위해 선행을 한다든지,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산다든지, 종교를 가진다든지 하지만 죄인인 인간이 스스로 어떤 행위에 의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걸리는 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공의로운 성품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우리의 죄를 벌하셔야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부딪치게 되는데 이 딜레마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이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완전한 삶을 사셨고, 죄를 짓지 않으시고 사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돌아가신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열쇠꾸러미에 있는 열쇠들은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우리 집 현관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하나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 문을 여는 바른 열쇠는 구원 받는 참 믿음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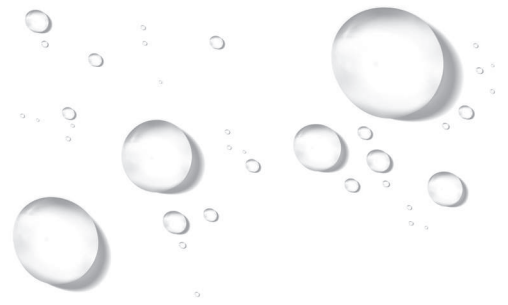
그러나 비슷하지만 구원 받지 못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단순한 지식적 동의는 구원 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을 역사상 실존 인물로 믿듯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 주시리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지식적 동의로는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원 받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구원 받는 참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 의자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일어날게요.

00 형제, 자매님은 이 의자가 여기 있다는 것을 믿으시죠? (네)
제가 이 의자에 앉으면 편히 쉴 수 있다는 것도 믿으시죠? (네)

그러나 저는 단순한 이유로 편히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의자에 앉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이 의자를 예수님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동안 저는 이 의자가 여기 있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제 자신의 선행을 의지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피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저의 구원을 위해 이 모든 문제들을 안은 채, 제 자신을 예수님에게 맡겼습니다. (의자에 앉는다. 잠깐 여유를 가진다.) 비로소 저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얼마나 평안하고 기뻐하지 몰라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이 바로 구원 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전화심방 노하우

전화심방은 표정없이 목소리로만 마음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목소리와 전화매너에 신경써야 하며, 새가족일 경우는 더욱 그렇다. 한 번의 통화로 다음의 통화가 기대되게 해야 한다. 안그러면 영원히 잠수탈 수도 있다.

1. 목적이 있는 전화

〈기분 좋게〉 목적을 분명히 밝힌다. 목적을 밝히지 못하고 뱅뱅 돌려 다른 말만하면 줄다리기가 되어 전화통화가 불편해진다.

2. 안부 전화

내가 얼마나 그 사람에게 성의 있고 관심이 있는지를 표현해 준다. 새가족이 나눠줬던 기도제목이나 관심사등을 기억하여 안부도 묻고, 관심사와 연결된 교회 행사도 알려 준다. 수업시간이거나 직장에서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새가족일 경우는 문자로 안부를 묻는 것도 좋다.

목장배정 노하우

1. 관계에 대한 관심

이제는 성공에 있어서 IQ, EQ를 넘어 NQ(Network Quotient)가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인간관계를 얼마나 잘 유지하고 운영하는지가 성공을 결정한다는 뜻이다. 그래서인지 요즘 새가족 청년들은 교회에 대한 첫 이미지가 다음으로 〈관계〉에 대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다. 새가족 모임을 하다보면, 자신을 어떻게 바라봐 주는지, 누구와 사귄 수 있는지, 어떤 목장에 소속이 될지 등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게 된다.

2. 5호 담당제

우리 교회는 새가족 모임을 두 번 하고, 목장으로 배정하게 되는데, 두 주 동안 최소 5명과 관계를 맺게 해 준다. 담당 목사, 새가족 담당 교역자, 새가족 담당리더, 배정 될 목장의 목사, 그리고 또래 친구이다. 이 중 가장 비중을 두는 관계가 〈또래친구〉이다. 첫 모임때 관심사나 성향등을 파악하여 비슷한 또래를 소개시켜 주고, 그 청년이 소속되어있는 목장으로 배정한다. 새가족이 새가족 교육을 마친 후, 목장으로 가는 주에 연락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목장으로 데려가는 역할을 이 또래 친구가 하게 된다. 새가족 담당 교역자는 새가족보다 새가족을 돌봐줄 또래친구와 목사에게 전화심방을 하여 지속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독려하고, 새가족과는 일대일 양육으로 관계를 맺는다.

2. 새로운 삶 일대일 양육 _ 4주

- 새가족이 교회 안에서 사역에 참여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 목회자가 정한 시간이 아니라 청년이 원하는 시간에 만난다.
- 정착에 있어서 이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복음은 누구나 한번쯤 들어본듯한 말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선하고 들리는 말로 전해야 한다. 타교회에서 오거나 신앙생활의 경험이 있는 청년들은 대부분 "저 이런 거 들어봤는데 그거 또 해야 하나요?" 하며 매우 지루한 표정을 짓는다. 사실 이런 반응의 청년들은 대개 두가지의 경우이다. 첫째, 성경공부에 대해 지루한 이미지만 남아 있어 더이상 흥미도, 궁금함도 없는 경우, 둘째, 복음을 알고 있지만 신앙이 차가워져 열심이 부담스럽고 귀찮은 경우. 이런 청년들일수록 더욱 복음을 뜨겁고 재미있게 전해 이미지를 바꿔줘야 한다.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위해서일 뿐 아니라 이들이 복음에 대해 뜨거워져야 또 다른 누군가를 전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새신자의 영적인 상태나 신앙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된다.

말씀으로 맺은 관계이므로 깊은 신뢰를 비교적 단시간에 쌓을 수 있어서 이후 다른 사역이나 프로그램 참여에 대해 독려하기 쉽다.

일대일양육 노하우

1.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200명의 청년들과 일대일양육 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들로 구성하였다. 이 질문들을 수업 도입에 사용하거나 수업 전 홍보 시 사용하여 흥미를 유발시킨다.

2. 청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best 3

- (1) 착하게 살다가 남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으면 자옥가나요?
- (2)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에 고통과 전쟁, 악은 왜 있나요?
- (3)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대하여 배타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 (4) 천주교와 우리는 무엇이 다른가요?

3. 효과적인 양육을 위해 던지는 질문 best 5

- (1)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 (2) <영>이라는 말은 교회에 안다니는 사람들도 사용한다. <영>이 무엇인가?
- (3)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정말 사랑하신다면 아담과 하와의 죄를 한번쯤은 덮어





주실 수 있지 않으실까? 왜 심판하시나?

(4) 왜 예수님을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을까?

(5)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 왜 쉬운 방법 (예를 들어 동시에 전 세계 TV화면에 예수님 믿으라는 말씀이 나온다든지)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해 전도하시나?

4. 질문들과 성경찾기를 통해 수업 시간 내내 집중 할 수 있게 돕는다.

생각하기 쉽고 재미있는 질문들과 들은 내용을 기억할 수 있는 질문들을 계속 던져 긴장감을 유지하고, 성경을 스스로 찾게 하여 말씀에서 답을 확인하도록 한다.

c. 새가족 성장 프로그램 : 새가족들의 영적인 성장을 일구어내라.

- 새가족이 참으로 정착하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 여호수아 청년부 존재 목적은 청년들의 영적인 성장을 돕는 것이다.
- 교제 공동체냐? 신앙 공동체냐? 교제 공동체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어느정도 성장한 후에는 교제 공동체의 특성상 더이상 새로운 성원을 원하지 않는 단계가 온다.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노력하고 또한 지켜나가야 한다.
- 이를 위해 종교교회 청년부는 제자학교와 성경학교를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 대부분의 청년부는 리더교육에만 신경을 쓴다. 그러나 리더들을 위한 교육만 있으면 안된다. 새신자들을 위한, 어중간한 신자들을 위한 교육도 있어야 한다.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충성스런 사람만 교회에 남아야 하는가? 아니다. 그럭저럭 살아 가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

청년부 성경학교 프로그램

- 1) 제자학교 : 새로운 삶 5주, 성장반 12주, 제자반 12주
- 2) 성경학교 : 크리스천베이직 8주, 즐거운 큐티 5주, 목적이 이끄는 삶 8주
행복한 전도 5주, 이해하며 성경읽기 12주

여호수아 청년부

제자학교

Joshua School for Discipleship

여호수아 청년부는
말씀과 사랑을 통해 영혼을
환원시켜 주실 하나님께
대답하는 것입니다.

말씀: 창세기 12장 1-4절
가운데: 불 기뻐서입니다.

101 새로운 삶 <창세기 12장>

5주 과정
주일 10시, 11시, 17시 30분
토요일 11시, 수요일 3시 30분

이런 질문은 누구한테 해야 할까요?
조금이라도 가장 가까이 하고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성경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201 성령의 열매 <갈라디 5장>

10주 과정
토요일 10시 30분
수요일 10시 30분

본 부의 성령의 열매를 따라갈 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때에
행복하고 성령의 열매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301 하나님의 사랑 <요한 1장>

10주 과정
목요일 18시 30분
평일 18시 30분

이제는... 사랑을... 사랑을...
사랑의 열매를 맺어 주실 하나님께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청년부

성경학교

Joshua School for Bible

여호수아 청년부는
말씀과 사랑을 통해 영혼을
환원시켜 주실 하나님께
대답하는 것입니다.

말씀: 창세기 12장 1-4절
가운데: 불 기뻐서입니다.

102 요한복음의 사랑 <요한복음 13장>

5주 과정
토요일 11시 30분

이런 질문은 누구한테 해야 할까요?
조금이라도 가장 가까이 하고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성경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103 유언의 사랑 <요한복음 14장>

5주 과정
토요일 11시

이런 질문은 누구한테 해야 할까요?
조금이라도 가장 가까이 하고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성경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202 유언의 사랑 <요한복음 15장>

5주 과정
토요일 11시 30분

이런 질문은 누구한테 해야 할까요?
조금이라도 가장 가까이 하고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성경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203 유언의 사랑 <요한복음 16장>

5주 과정
토요일 11시

이런 질문은 누구한테 해야 할까요?
조금이라도 가장 가까이 하고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성경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302 유언의 사랑 <요한복음 17장>

5주 과정
토요일 11시 30분

이런 질문은 누구한테 해야 할까요?
조금이라도 가장 가까이 하고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성경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청년부 성경학교 홍보물

c. 새가족이 정착하는 이유 :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새가족들에게 물었다. 우리교회 정착하게 된 이유는? <사람들의 표정이 밝다. 찬양이 좋다. 간사님이 잘생겼다. 목사님이 좋다. 설교가 좋다. 집이 근처다. 회사가 근처다. 등등> 이 말을 믿으면 안된다. 자기들도 정착하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물어보니 대답했을 뿐이다.

실은 그들이 정착하는 것은 우리교회에서 거부감이 아니라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다. 규모와 상관없이 교회는 새가족들에게 매력적이어야 한다. 작은교회라고 매력 없으라는 법 없다. 큰 교회는 상상도 못할 일을 계획하고 기획하면 된다. 작은 공동체가 가장 매력적일 수 있는 일을 시작해보라.



설교

설교가 새가족에게 매력적이어야 한다. 알아듣지 못해도 매력을 잃지 말아야 한다. <설득적으로 공감을 얻어가며 뜨겁게> 전해야 한다. 무엇을 하든지 설득적이어야 하고 새가족의 공감을 얻어야 하며 가슴이 울리도록 뜨겁게 전달해야 한다. 성경공부도 이 원칙아래 있어야 하고 기도 회도 같은 원리로 준비해야 한다.

예배

새가족들은 예배를 통해서 뭔가 다른 것을 <느끼고> 싶어 한다. 그들에게 나타나는 변화를 살피기 보다 예배하는 기존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무언가를 찾는다. 다시 말해 새가족은 예배에 관심이 있기보다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 그러므로 새가족을 위한 예배는 그들에게 맞춰진 예배라기보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리는 온전한 예배이다.

기도

마찬가지다. 새가족을 위한 기도회는 없다. 새가족이 보고싶은 기도회가 있을 뿐이다. 기존의 성도들이 진실하게,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매력적인 없다. 이런 기도회야말로 새가족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가장 좋은 학교다.

사역 준비 노하우

1. 열심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교회가 이 일에 열심을 낸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교회는 열매가 있고 어떤 교회에는 열매가 없다는 것이다. 열심의 문제일까? 아니다. 단지 열심의 문제는 아니다. 어떻게 열심을 내야 하는지 모르는 것이다.

2. 잘 해야 하고 꾸준히 해야 한다.

기도회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잘 해야 하는 문제다. 성경공부, 리더교육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잘 하는 것이다. 기도회나 리더교육이나 가장 중요한 평가자들은 그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그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즐거워야 한다. 또 하나의 문제는 꾸준히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일을 마무리 하는 사람은 탁월한 사람이고 일을 지속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다.

d. 새가족은 한가족이 데려온다는 것을 잊지 마라

- 한가족에게 사랑스런 교회, 새가족에게 사랑스런 교회
- 한가족에게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이 새가족 정착을 높이는 길이다.
- 어떻게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 성장이 멈추는 것이 가장 힘들다. 새신자를 데려오고 싶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한가족 관리 노하우

1. 일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아야 한다.

일꾼을 세우는 것이 눈 앞의 일을 성취하는 것보다 귀하다. 내가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청년부의 부흥과 목회자의 성장이다. 어떤 면에서 나는 조금 덜 성장하더라도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 교회를 섬기는 일이 행복하게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의미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는 것이다. 그들이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수지맞는 일이다.

2. 체력

지칠줄 모르고 덤비는 사람을 말려야 한다. 지쳐서 나가떨어질 때까지 일하게 하지 말고 평생을 힘써 일할 수 있도록 관리해 줘야 한다. 어린 청년의 경우 몸을 불사를 줄만 알지 지킬줄을 모른다. 그리고 그 결과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다. 관리해 주어야 한다. 일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아야 한다.

3. 정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라. 교회를 섬기는 일은 힘든 일이 되어서는 안된다. 힘들어도 참는 일이 아니라 힘든 것이 행복해야 한다. 기쁨을 위해 일하게 하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느끼게 해 주어야 한다. 청년들이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두가지가 지켜져야 한다. 기뻐야 한다. 성장해야 한다.

4. 영성

모든 것의 이유는 신앙에 있다. 몸이 부서지는줄 모르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마음에 상처를 받는 일이 있어도 미소를 잃지 않는 섬김도 이유는 리더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꾸 일을 하려는 성향이 있다. 사역이 메마른 과업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역의 이유를 일깨워 주어야 한다. 이것이 리더의 역할이다.





e. 닫는 말 : 새가족과 소통하는 목회자

1. 창조하는 이에게 권위가 있다.

요즘은 너무 볼것많아서 흥내내기에 좋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지만 모방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어머니 품을 결코 떠나지 못한다. 권위는 창조에 있다. 한국교회 부흥기의 선배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기에 성도들과 자신에게 더욱 집중할 수 있었다.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소통의 방법을 찾아냈다. 그래서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을 붙들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요즘은 선배들의 모습을 흥내내기에 급급한 것만 같다. 성도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언어와 문화와 접근법을 고민하지 않는다. 이제는 인터넷을 닫고 성도를 보려고 한다. 누군가의 소통법이 아니라 나와 그들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고 싶다. 그리고 보니 요즘들어 성도들이 교회를 버린다고 하지만 실은 요즘 목회자들이 성도를 버리는 것 같다.

2. 목회자가 성장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어떻게 그들에게 잘해줄까를 생각하기 전에 내 자신이 객관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모습을 가지는 것에 힘을 쏟고 싶다. 사랑해 본 사람은 안다. 사랑하는 이에게 어떻게든 잘해주려고 하면 처음에는 좋아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시들고 실망한다. 그가 사랑하는 자신의 모습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사랑도 깊어지지 않는가?

마찬가지다. 초신자들을 정착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목회자가 성장하는 것이다. 목회자가 신뢰를 얻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매력있는 모습을 갖는 것이다. 이것이 우선이고 차선이 그들에게 잘해주는 것이다. 교회도 목회자의 성장과 함께 점점 변하고, 발전하고, 성숙하고, 멋지고, 근사한 공동체가 되어 가야 한다. 머물러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새생명축제 소모임 진행 Tip

1. 모이기 시작할 때

"저희 교회 이름이 종교교회잖아요, 사람들이 교회 이름이 무슨 종교냐고 종종 물어보시는데, 종교는 마루 종의 다리 교자를 써서 <하늘다리>라는 뜻이에요. 하늘과 땅을 잇는다 뭐 그런거죠. 파란책, 하늘다리 책자는 일 년에 한번 내지 두 번 발행되고, 여호수아 청년부의 활동을 담은 화보집이에요. 여기에 출현하시고 싶으시면 열심히 행사에 참여하시면 되요."

2. 커피가 배달된 후

"예매 괜찮으셨어요? 느낌이 어떠셨어요?"

대부분 단답형으로 말한다. 당황치 말라. 원래 어색하다. 눈 마주치기 어려워 질 때, 바로 소개하자!

3. 소개

"저희 돌아가면서 소개할 텐데 처음 오신 분들은 부담되실 것 같으니까 데려오신 분들이 소개해 주기해요."

목자가 먼저 자기소개 한다.

"저는 000이고요, 0살이에요, 저는 00를 전공하는 학생이고요./ 00 일을 하고 있고요./ 준비하고 있고요, 제 취미는 승마고요(ㅋㅋ 농담 하실 분만) 농담이고, 저는 (형제)축구하는 거, (자매) 친구들이랑 커피숍에서 수다하는 거 좋아해요."

"제 옆에 있는 이 친구의 이름은 000 이고요, "

똑같이 관심사, 취미 등을 소개해 준다. 목자가 틈을 주지 말고, 리액션 해 준다. "아!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오버 액션) 저희 기도 많이 했어요.

바로 태신자에게 질문한다.

"OO형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 줬길래 여기까지 오셨어요? (따뜻하게~)"

상황에 따라서 (농담하면서 웃을 수 분위기를 만든다.)

"별 거 안해줬는데 오신 거 보니까 성격이 진짜 좋으신가봐요."

4. <Option>이어서 할 수 있는 대화나 게임

"예배 중 어떤 순서가 가장 좋으셨어요?"

요즘 화두(관심사) 물어보기 (브레인 카툰- 뇌 그림)

게임 (문자게임: 새가족 한 명이 번호 불러주면 모두가 "환영해요" 문자를 보낸다. 1등에게 간단한 선물 주기), 간단 보드 게임 문의_ 이은미(전) 레크레이션 강사), 기타 등등

목장 당 게임선물(초콜렛) 두 개씩 지급 됩니다.

5. 훈훈한 마무리

"오늘 만남, 너무 좋았어요, 또 뵙길 바래요."

(다른 목원들이 다음 주에 또 오라며 부추긴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위해 기도하고 마칠게요."

- 하나님, 우리들의 발걸음을 이끌어주신 것, 함께 예배하게 하신 것, 또 이렇게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소개 때 들었던 내용, 하고 있는 공부나 일 등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앞으로의 삶을 인도해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